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③
(修習止觀坐禪法要)

악업을 끊고 뜻 선을 행하라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으나 어떤 종파의 학문을 연구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핵심은 이 사구계를 근본으로 의지해서 수행해야만 불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악업은 여전히 일어나고 뜻 선행은 올바르게 실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사 총명지 혜가 남달리 뛰어난 경륜을 삼장을 정미하게 연구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불법의 진실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 끝내 불법 내에서 사건을 지닌 외도의 견해를 이를 뿐이다.

그러나 '악업'이라는 두 글자는 막연하게 나쁜 짓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그 의미를 철저히 세분해서 규정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 악한 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악업을 총괄적으로 요약한다면 대략 열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낸 신업이 셋이고(身三) 언어로 나타낸 구업이 넷이며(口四) 의식분별로 일어나는 의업이 셋이다.(意三)

신업은 살생·도적질·음행이며 구업은 이 간질하는 말, 헐뜯는 말, 허망한 말, 실제에 맞지 않게 꾸미는 말이며 의업은 탐욕스러운 마음,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 사리에 어두운 마음이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십악업(十惡業)이라고 한다.

이 같은 악업은 자신만 괴로울 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고통을 받게 하므로 십악업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자타가 모두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를 두고 "모든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미 일어난 악업은 소멸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만 악업의 뿌리까지가 완전히 뽑힌다는 것이다. 이 같이 행해야만 진정한 '제악막작(諸惡莫作)'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불법을 올바르게 수행함이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매일 기상을 하면 제일 먼저 상기시켰던 '구업을 지키고 의업을 거두며 몸으로는 범하지 말라. 이같이 수행해야만 생사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수구십의신막범 여시행자능도세(守口攝意身莫犯 如是行者能度世)]한 의미에 해당된다.

그러나 불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악업을 짓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악업을 행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는 지금껏 소극적인 자리의 측면에만 머물게 되므로 불법을 수행하는 초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악업을 짓지 않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뜻 선 공덕을 적극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이다.

단지 살생을 하지 않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

總說 1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이 사구계는 지관법문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일대불법까지 모두 해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장십이부경이 이 사구계에 포괄되지 않음이 없다. 이 사구계는 문장은 쉽고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끝없이 심오하다.

"모든 악업을 짓지 말라" 함은 '止'에 해당되고 '뜻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함은 '觀'에 해당되며 "스스로 그 의식을 정화하라" 함은 '止觀不二'에 해당된다. 바로 이 도리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이 사구계가 바로 불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절실한 요점인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실천하라"한 이 두 구절이야말로 맑은 지극히 평이하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옛 선사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만 팔십이 된 늙은 노인도 막상 실천하기란 어렵다"고 가르쳤는데, 참으로 깊이 음미해야 할 법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악업도 털끝만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의식은 고요한 호수처럼 안정되어 다시는 뒤바뀐 망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뜻 선 공덕을 받들어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지혜광명이

자, 받는 자, 중간물질이라는 삼륜(三輪)이 수레바퀴 돌 듯 하면서 그에 대한 집착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애증과 분별과 시비를 버리지 못한다. 이는 보시행을 하면서 일으키는 또 하나의 집착이고 번뇌인데 이를 두고 '견사혹(見思惑)' 즉 아집을 일으키는 번뇌라고 한다.

육도법부는 진여성공(眞如性空)의 이치를 미혹하여 허망한 분별 번뇌를 내적으로 일으킨다. 이 번뇌를 견혹(見惑)이라고 한다. '見'은 분별의 의미이다.

내적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번뇌, 즉 견혹을 일으키면 일체 역순(逆順)경계를 마주했을 때 대상에 있어서 다시 탐심·진심·애중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객관대상을 탐애하는 번뇌인 사혹(思惑)에 해당된다. '思'는 탐애의 뜻이다.

중생들은 '견사혹'을 따라서 끝없는 악업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삼계생사의 원인이 되어 끝내는 그에 따른 과보를 부르게 된다. 이것이 중생들의 생사윤회인과 관계이다. 즉 미혹을 일으키면 그에 상응하는 업을 짓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삼계생사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다.[기혹조업수과(起惑造業受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간에서 유무 번뇌로 심신(十善)을 행한다면 그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 실사 선행을 간단없이 행한다 해도 그 의식은 청정하게 정화되지 않고 그 모두가 다시 유무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반드시 집착없는 마음으로 악업을 그치고[止(止)] 견사혹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제악막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시 무위의 계정해 삼학을 뒤이 중생이 본래없는 이치를 깨닫고 아집이 끊어진 자리에서 진공(眞空)의 지혜가 나타나야만 진정한 '중선봉행'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앙승가대 교수

http://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업(業)의 분류 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세 가지 행위를 알았다면 그 유형 성질에 따라 분류한 업(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관계성으로서의 업
업에는 한 개인이 짓는 불공업(不共業)과 단체 구성원이 함께 짓는 공업(共業)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불공업'은 개인에게 국한된 행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악업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시를 통해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두 사람의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업'은 타인과 함께 하는 행위인데, 모든 사람들이 합작해 함께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이룬 경우입니다. 작가는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사회의 조직이 어느 한 사람의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업과 불공업은 그 성질이 외형상 동

개인의 행동,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 공업·불공업 독립적으로 존재 않아

일하지 않고도 하더라도 상호연관관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성질적인 업
행위는 다시 그 성질상 착한 성질의 행위인 선성업(善性業), 악한 성질의 행위인 악성업(惡性業),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행위인 무기업(無記業) 등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 '선업'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이익을 주고 금생과 내생 그 모든 시간대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업'을 세분하면 오계십선(五戒十善)·육바라밀·사십법(四攝法) 등이 있어 이 행위는 삼선도(三善道)나 출세간에 태어날 원인이 됩니다.

둘째 '악업'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선업과 마찬가지로 신구의 삼업을 의지해서 십악업(十惡業) 등의 행위를 짓게 되는데 이 행위는 삼악도(三惡道)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무기업'은 그 행위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서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와 이익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착한 성질의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 따라야만 악한 성질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무기업은 그 통기에 따라서 그 행위가 선업과 악업으로 이어지기도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민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순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자광이를 절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강하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저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변 운이 바뀐다 명당목욕탕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 목욕탕이면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계나 사계에 시달린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러도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인종운인분들은 명당목욕탕 기묘처방을 해보십시오.

◆ 목욕탕 명당을 만들어 주변 세운으로 변화하여 좋게하게 됩니다.
◆ 집이나 공장이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목욕탕이 아니면 사라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목욕탕 (051)865-9933

전도재 49재와 결을인 처방법 전회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목욕탕은 각 사찰, 양지,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목욕탕의 목욕탕이 황금목욕탕 목욕탕이 황금목욕탕으로 변합니다.